

“이념 넘어 민생으로 승부”

민주당이 탈(脫)이념과 당 현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뉴민주당 플랜’ 초안을 마련했다.

김효석 당 뉴민주당 비전위원장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노선으로 기존에 검토했던 ‘새로운 진보’, ‘신중도개혁’ 대신 ‘현대화의 길’이라는 탈이념적 모토를 내세운 뉴민주당 플랜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서는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 사는 공동체’를 3대 가치로 정했으며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를 2대 발전 전략으로 내놨다. 당초 ‘지속가능한 성장’, ‘모두를 위한 번영’을 2대 비전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초안은 또 ‘창조적 발전모델’을 내세워 ‘우리의 발전전략은 선성장 후분배 모델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모델도 아닌,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3의 발전모델’이

■민주 ‘뉴민주당 플랜’ 초안 공개

‘양극화 극복·성장분배 동시 달성’ 담겨 천정배 “방향·구체성 어정정... 보완책 필요”

라며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성장,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국가 발전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안은 “‘포용적 성장’은 인적자본을 원동력으로 한 사람중심 경제를 통해 그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질 좋은 성장을 뜻하며 보수주의의 ‘작은 정부’, 낮은 진보의 ‘비대한 정부’ 대신 ‘강하고 효율적 정부’를 추구한다”며 “기회의 복지”는 생산에서 분배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 모두 도전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제 부문에서는 중산층 강

국 실현과 서민에 대한 포괄적 규제안 마련 등을 제시했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창의적 공교육실현과 고등교육까지의 무상의무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의료와 육아 고용 확대를, 환경·에너지 부문에서는 녹색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적응 경제체제 전환 등을, 통일·외교·안보 부문에서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작지만 강한 군대 마련 등을 각각 제시했다.

초안은 현 상황을 민주당의 위기로 규정, “참여정부와 민주화세력이 표방한 기본가치와 정책방향은

옳았지만 정책수단은 유효하지 못했고,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성장에 대한 목소리는 작았다”며 “시대적 과제와 변화의 흐름을 직시, 뼈를 깎는 자기성찰을 통해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반성도 담았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지역위원회 회의와 25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7개 권역별 순회 당원 토론회를 진행한 뒤 뉴민주당플랜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내 비주류 강경과 중심보다 선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당내 노선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비주류 강경파로 분류되는 천정배 의원은 이날 “아직 완성본은 되지 못했지만 당 정체성으로 제시된 ‘현대화의 길’은 ‘제3의 길’ 같아 뭔가 어정쩡하다는 느낌”이라며 “뉴민주당 플랜은 방향성과 구체성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 무효를 선언한 지 이틀이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가 휴일을 맞아 인적없이 침묵에 싸여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어찌나...” 정부 회담재개 다각 모색

대화재개 방침 확고...北 역제의 거부 이유 없어 폐쇄 대비책도 강구중...오늘 실무회담 힘들 듯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법규 및 기존 계약 무효’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현안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5일 북측에 제의한 ‘18일 회담제안’이 유효하다는 입장 하에 개성제널을 통해 북한에 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새로운 회담 날짜를 역제의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

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휴일인 이날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출근, 주요 실·국장 등 통일부 간부들과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해 북측이 이날 오후 6시까지 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리는 힘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북측에 보낸 18일자 개성공단 출입통행계획에도 우리측이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 정부 대표들의 명단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정부 대표자 명단은 이미 15일 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면서 “회담 개최에 대한 남북간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출입통행계획에 명단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개성공단 폐쇄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진보, 서민층 돌보는 생활정치로 천착해야”

이해찬 前 총리 강연회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민주주의 원탁회의 주최로 지난 16일 수원 농민회관에서 열린 제1차 경기민주포럼 강연에서 “진보세력은 서민·중산층의 생활을 돌보는 ‘생활정치’로 깊이 천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2010 민주개혁 진영의 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민주·진보세력 간 견해차는 있었지만 기초의료·사회보장·주거·보육 등 서민·중산층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는 굉장한 호소력을 갖고 있다”면서 “중산·서민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진보세력의 가치를 담고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연차 게이트’ 2개월...8부 능선 넘는다

檢, 이번주 盧 신병처리 방향, 천신일, 정·관계 인사 등 줄소환 박차

지난 3월1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정육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막이 오른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2개월을 채웠다.

검찰은 이번주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세무조사 무마로 비 의혹의 핵심으로 의심받는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등 이번 수사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으로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관계인사를 줄소환한 뒤 5월 말에 이들을 일괄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현재 권양숙 여사에 대한 조사만 남겨 놓고 있다. 검찰은 금명간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뒤 권 여사를 소환해 40만 달러 송금 경위를 조사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이번주 세무조사 무마로 비 의혹의 핵심인사인 천신일 회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친구이자 박 전 회장과 의형제 관계라는 점을 감안해 그가 현 정권 핵심 인사나 세무조사를 지휘했던 한 상를 전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탁을 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를 전 국세청장에게 17일 오후 서면조사를 위한 이메일을 발송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7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이 전 수석은 작년 7~11월 박 전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

복 전 중부국세청장과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과 함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대책회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수석에게는 2003년 동생을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5억4천만원을 빌려 변호사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5월 중에 현역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정·관계인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태호 경남지사 등 부산·경남 지역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아울러 민유태 전주지검장 검사장에 17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경찰 고위 간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이번 주에 검찰 수사는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등 7곳 판사회의 ‘申사태’ 오늘 분수령

신영철 대법관 논란과 관련해 18~19일 광주고법과 광주지법 등 일선 법원 소장판사들의 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재판관 징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18일 전국의 법원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이날 판사회의가 열리는 법원은 광주고법과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등이다. 또 19일에는 광주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들 판사들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곧바로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릴 예정이어서 18, 19일이 신 대법관 사태가 확산 또는 진정될지를 가늠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6·25전쟁 전후 광주서 고아 돌본

美 선교사 11명 추모예배

美 노스캐롤라이나주

6·25 전쟁을 전후로 광주에서 전쟁고아들을 돌보며 봉사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미국 선교사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산골 마을에서 열렸다.

미국 동부의 남북을 잇는 애팔래치아 산맥 끝 자락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부의 산골마을 몬트리트시. 주말인 지난 16일 오전 몬트리트 대학 교회에서는 한국에서 고아들을 돌보며 젊음을 바쳤던 선교사 11명을 위한 추모예배가 거행됐다. /연합뉴스

미 장로교 해리티지 센터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선교사들의 유족과 후손들은 물론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이희철 부총영사, 광주 양림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충현원’의 유혜량 목사 등 한미 양국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동안 진행됐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 및 공군 포로들에 선교활동을 하면서 고아들을 돌봤던 브루스 커밍스 목사, 6·25때 한국을 떠나기를 거부한 채 광주 수피아 여고 교장을 지내며, 충현원 고아들을 지원했던 루트 여사도 이날 추모의 대상이 된 주인공들이다. /연합뉴스